

초과세수 활용 방안 및 국부펀드 설립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.6.16. 매일경제는 「이달 공개 한국형 국부펀드 재원 놓고 정부부처 신경전」 기사에서,
 - “기획예산처가 향후 설립할 ‘미래대응기금’(가칭) 가운데 일부를 재정경제부 소관인 국부펀드에 투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”,
 - “재경부는 이달 중 ‘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방안’을 발표할 예정”,
 - “그동안 재경부와 기획처는 국부펀드 재원 조달안을 놓고 이견을 보였”으며, “재경부는 초과세수 활용안을 선호하는 데 반해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초과세수를 기금에 담길 원했다”,
 - “금융위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와 재경부가 추진하는 국부펀드가 모두 전략산업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중복 투자 논란이 있었”고, “국부펀드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 사안인 만큼 부처 간 이견이 정리되는 모양새”,
 - “기획처 미래대응기금이 ‘호주머니’ 역할을 하고, 해당 기금 일부를 국부펀드에 투자하는 방안도 절충안으로 거론된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- 미래대응기금 신설, 국부펀드 투자 등 초과세수의 구체적 활용 방안, 국부펀드 설립 방안 및 발표시기 등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재정경제부 전략경제총괄과	책임자	과 장	정여진 (044-215-4550)
		담당자	서기관	유형세 (hyongseyod@korea.kr)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정애 (044-214-2330)
		담당자	서기관	하치승 (hcs017@korea.kr)
	기금운용혁신과	담당자	사무관	박성준 (bbakko0@korea.kr)

